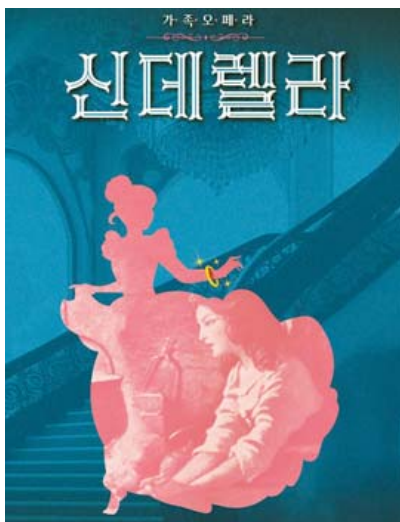


# ‘계부와 신데렐라’...오페라 동화로의 여행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가족 콘서트 ‘신데렐라’...오는 26-27일 ACC 예술극장2



지휘자 박인욱 연출·해설 이경재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 메조소프라노 김세민 테너 이승민 테너 강동명



전 세계인들에게 친숙한 샤를 페로의 동화 ‘신데렐라’를 원작으로 한 오페라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가족 콘서트 오페라 ‘신데렐라’가 오는 26일과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콘서트 오페라는 일반적으로 무대 장치나 의상을 갖추지 않고 연주회 형식으로 올려지지만, 시립오페라단은 무대·연출·의상·분장·조명·영상 등 연출 요소를 살린 특별한 시리즈를 제작해 대중과 평단의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 공연 역시 원작을 최대한 반영하되 오페라의 섬세한 음악적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할 뿐 아니라 작품의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했

다.

오페라 ‘신데렐라’는 19세기 이탈리아 벨칸토(아름답게 노래하는 가창법) 오페라 대표 작곡가 로시니의 작품이다.

아름다운 선율, 재치 있는 유머가 가득한 이 작품은 이복 언니들의 괴롭힘에 눈물짓는 주인공이 아닌 씩씩하고 명랑한 신데렐라를 새롭게 그려내며 새어머니 대신 새아버지가 등장해 새로운 재미를 더한다.

특히 2막 신데렐라의 아리아 ‘이젠 슬프지 않아요(Non piu mesta)’가 단독으로 자주 공연되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공연 연출은 서울시립오페라단장을 역임한 한국 대표 연출가 이경재가 맡았으며 박인욱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가 지휘봉을 잡아 새카메라타전남 오

케스트라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재투성이아가씨 ‘신데렐라’ 역은 메조소프라노 지나 오와 김세민이 맡았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서는 왕자 ‘돈 라미로’ 역에는 테너 강동명과 이승민이 출연한다.

신데렐라의 새아버지 ‘마니피코’ 역에는 바리톤 김지욱,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이복 언니 ‘클로린다’ 역에는 소프라노 김나연과 신은선이 나선다.

‘티스베’ 역에는 소프라노 서미선과 박혜민, ‘단디나’ 역 바리톤 조재경, ‘알리도르’ 역은 베이스 김일동 등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들의 화려한 라인업이 돋보인다.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담은 로시니의 걸작 오페라 ‘신데렐라’를 통해 온 가족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오페라 경

험을 얻어가시길 바란다”며 “동화 속 마법 같은 순간을 재현해 줄 이번 무대가 관객 각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 콘서트 오페라 ‘신데렐라’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과 27일 오후 3시, 7시30분 세차례 진행된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412-2502. /최명진 기자



## 명인·명고 6인 ‘하우스콘서트’

26일부터 전통문화관 ‘진 : 소리’...사전 선착순 접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7-12월 ‘진 : 소리’ 국악무대를 즐길 관객 접점에 나선다.

‘진 : 소리’는 판소리나 산조에 쓰이는 장단 ‘진양조’에서 차용한 표현이다. ‘긴 호흡으로 느리게 감상하는 전통 국악의 진짜 소리’를 뜻한다.

6명의 명인·명고가 선사하는 국악무대는 오는 26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여섯 번 진행된다.

26일 무대는 이지영 교수의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다.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명쾌한 기경결해와 호소력 있는 선율, 화려한 기교, 그리고 즉흥성으로 산조의 정수를 보여준다.

장단은 국가무형문화재 동해안별신굿 이수자 방지원이 맡는다.

이어 8월23일에는 권하경 명창의 서편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공연이 준비돼 있다.

9월27일 공연에서는 김선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차석단원이 김영

재류 해금 김산조 공연으로 해금산조의 진수를 선보인다.

10월25일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이 나선다. 깨끗하고 정교한 소리가 특징인 그는 이날 보성소리 판소리 네 바탕 내대목을 선보인다.

11월15일 무대에는 유소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이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 공연을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인 12월6일 공연에는 주소연 명창이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선사한다.

‘진 : 소리’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 전화접수가 필수다.

사전 예약한 최대 40명의 관람객들이 다식을 즐기면서 출연자와 함께 소통하는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전통문화관 (062-670-8502)으로 문의해 희망하는 공연 날짜와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선착순 마감. /최명진 기자

## ‘증인으로서의 자연’ ‘대항적 기억’을 탐구하다

‘치유·회복’ 프로젝트展...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숨겨져 있거나 지워진 공공 기억의 흔적을 마주하다.’

한국과 캐나다 예술가 및 연구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모였다.

오는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증인으로서의 자연’ 전시에서 그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다학제적 큐레이토리얼 리서치 플랫폼 ‘드리프팅 커리큘럼’과 캐나다의 연구 창작 집단인 ‘카운터메모리액티비즘’의 협업 프로

젝트의 일환이다.

한국과 캐나다의 역사적 갈등, 기억, 생태적 재난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써 ‘대항적 기억’을 탐구한다.

참여작가는 권은비, 박한나, 솔로몬 나글러, 송지형, 안젤라 헤더슨, 양숙현, 정윤진, 정혜정 총 8명이다. 기획은 멜라니 윌킨스, 조주현이 맡았다.

이들은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로 상호 간 지역 연구를 통해 인류세, 지구 환경 위기, 과거와 미래의 생태 재앙이

어떻게 지도화·기념되는지 탐구하며, 자연이 과거의 비극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살핀다. 또한 자본주의 폭력과 환경 재앙, 식민지 구조에 의해 자선들의 역사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대항적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전시를 기획한 드리프팅 커리큘럼 측은 “광주의 역사, 트라우마와 함께 캐나다 식민지화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찰하는 이러한 과정은 글로벌 식민주의의 영향이 어떻게 인간 공동체와

비인간 공동체의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생태학적 삶에 얽혀 나타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현재·미래의 환경적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공동체 일상 경험의 교차점에서 다중적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생태적 식민성을 되돌아보게 할 것”이라며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서 문화, 풍경, 역사 사이 사변적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명진 기자

## 문화영 대표가 들려주는 미술이야기

24-2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2024 하반기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강연을 진행한다.

7월 강연은 문화영 (사진) 예술공간 집 대표의 미술강좌로 오는 24-25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서 진행된다.

강좌 1차시에는 미술을 주제로 작품 감상의 즐거움에 대해 알아본다. 2차시에는 빈센트 반 고흐, 수잔 발라동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본다.

강연자로 나서는 문 대표는 조선대 미술대학에 출강하고 있으며 문화기관, 공공기관에서 미술 관련 강의를 진

행 중이다.

2017년 복합 예술공간인 ‘예술공간집’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등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15명으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문화예술작은도서관 (062-670-7968)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 파크골프

##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